

충남사회혁신×사회적경제포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국제 포럼 개최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진경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강윤정)와 충남사회혁신센터(센터장 박주로)는 3월 29일, 천안 광덕산환경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라는 주제의 연속 포럼 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넛 경제학과 국민총행복〉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영국과 일본에서 발표자들이 참여해 줌(ZOOM)을 이용하여 참여하고, 충청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생중계도 진행되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회적 기초선과 생태적 한계선 안에서의 조화롭고 균형잡힌 번영의 필요에 깊이 공감하며, 참가자들에게 서로가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고, 많은 영감과 지식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섹션에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 여가, 공동체, 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을 담은 ‘국민총행복’의 전문가 가츠 마사키 교수(코난 대학교)가 1972년부터 국가적으로 국민총 행복을 실천하고 있는 부탄의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가츠 마사키 교수 발제

두 번째 섹션은 레오노라 그루체바 박사(도넛 경제학 액션랩 협력팀장)이 ‘도넛 경제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넛 경제학’은 GDP 맹신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사회와 자연에 묻어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로, 도넛 경제학의 모델이 되는 벨기에, 캐나다,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레오노라 그루체바 박사의 발제

세 번째 섹션은 박현수 교수(순천향대학교)의 ‘사회적 기초선과 생태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뒤이어 도넛 경제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 데이터의 지표화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짐으로 포럼에 대한 열기를 더했다.



박현수 교수의 발제 및 토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윤정 센터장은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 시대지만 외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하여 우리 사회의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윤정 센터장의 총평

앞으로 계속되는 세 번의 포럼은 3개월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각 포럼의 주제는 4월 '새로운 실천 : 그린 인플루언서와 일상의 실천가들', 5월 '새로운 결합: 기후 시민과 사회적경제', 6월 '새로운 여가: 생태적, 포용적 지역 살림 여행'로 구성됐다.

이번 포럼 시리즈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적 한계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공동체의 축소에 대응하고자 우리 지역을 사회적, 생태적, 지역적, 지구적인 렌즈로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포럼 현장 참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모집할 예정이며, 충남사회혁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관련 정보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의 웹사이트나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포럼 현장 참석자들의 단체사진